

# 연구 결과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력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Study Finds Over Half of Noise-Exposed Workers Do Not Use Hearing Protection  
When Exposed to Noise on the Job

번역 김효진 대외홍보팀 차장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한 작업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 또는 “빈번히(usually)” 청력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청력보호구(Hearing protection device: 이하 HPD) 미사용은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 근로자에서만 측정되었다.

미국에서 매년 약 2,2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위험한 소음에 노출된다. 금융 및 보험, 의료 및 사회 지원과 같은 산업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적지만, 이러한 산업에서 노출된 근로자 중 청력보호구 미사용이 가장 높은 청력손상 유병률을 발견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여성 근로자, 젊은 근로자(18-25

세) 및 현재 흡연자가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별과 연령대에 의한 청력보호구의 미사용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합니다”라고 연구 역학자이자 공동저자인 엘리자베스 마스터슨(Masterson) 박사는 말했다. “하지만, 흡연과 청력 보호구 미사용 사이의 어떠한 관계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현재 흡연과 청력보호구 미사용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한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과 2014년 국민건강면접조사에서 39,508명의 현재 성인 근로자들을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는 참가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청력보호구 사용과 직업 소음 노출에 대해 물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 중 2,057명은 2007년 12개월 동안, 그리고 2014년에는 3,380명이 직업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했다. 전체적으로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청력 보호구 비사용의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4년에 소음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 중, 연구자들은 대다수(53%)가 청력 보호 장치를 일관되게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음 노출 근로자 중 청력보호구 비사용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숙박 및 식품 서비스(90%), 의료 및 사회 지원(83%), 교육 서비스(82%) 등이 있다. 또한 소음이 잘 알려진 위험한 산업 중 일부는 농림어업, 어업 및 사냥(74%)과 건설

(52%)을 포함하여 청력보호구 비사용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고 청력보호구의 적절하고 일관된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 위험한 소음의 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스터슨 박사는 전한다.

“또한 작업자가 편안하고 소음으로부터 지나치게 보호되지 않는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여 음성 및 기타 중요한 작업장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청력보호구 사용에 대한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